



2016년 5월 15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03048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님 귀하
Fax: +82 2-770-4721
E-mail: President@president.go.kr

-대한민국 내 난민과 망명신청자와 관련하여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저희 새로운 에티오피아를 위한 연대운동(SMNE)은 대통령님께 현재 망명하려 하는 에티오피아인 난민들을 대신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SMNE는 다양한 에티오피아인들을 위한 사회적 정의 단체로서, 에티오피아와 해외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

SMNE의 대표로서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 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삶의 영위수단을 찾으면서 겪는 어려움을 더 알아보기 위해 난민신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만난 후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시민단체, UN 난민기구 관계자와 언론인들을 만나 에티오피아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에티오피아인들이 왜 애초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 관계자들과 난민신청자들을 돕는 시민단체를 만나 큰 감명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난민들의 피난처'라는 북한이탈주민과 한국과 해외의 난민신청자를 보호하고 돕는 NGO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돕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행히도 대통령님이나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관계자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통령님과 다른 관계자들이 난민신청자들과 관계했는지도 모르는 몇 가지 사항과 질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난민신청의 배경에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대통령님의 에티오피아 방문과 에티오피아의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서는 분명 완전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에티오피아와 대한민국의 경제적 결속과 발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들의 이야기들은 밝혀지지 않은 고통을 드러낼 것이고 이것이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왜곡되고 감추어질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역사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엇보다도 먼저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둘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 하일레 셀라시 왕조가 에티오피아를 지배했을 당시 자유를 위한 한국전쟁에 파병했던 16 개국 중 한 국가였던 때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이 북쪽의 공산주의 군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한국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죽고 다쳤지만, 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2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티오피아 국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억압적인 지배 하의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해 죽고, 다치고, 투옥되고, 고문 받고 있습니다.

억압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난민이 되어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목숨에 대한 위협-인신·성매매와 장기매매부터 과적된 배가 뒤집힐 위험까지, 그리고 배고픔과 질병, 열악한 생활환경까지-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이러한 환경은 에티오피아의 가장 교양 있고 바른 말을 하는 시민들은 에티오피아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이룩한 성과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매우 훌륭한 모델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에티오피아인들에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혁신적인 변화가 희망으로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루어낸 민주주의 통치, 효과적인 법치주의, 평화체제 구축, 시민사회의 강화, 강한 경제정책, 번영, 한국인 전반에 뿌리내린 복지는 매우 위대한 진보이며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것이 에티오피아인들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같은 정부를 가지고, 일부 통치 민족과 정당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기회의 평등을 누렸다면 이들은 고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자국민에게 적대적인 국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난민신청의 이유가 정치적인가, 아니면 경제적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그 둘 모두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왜 큰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은 1991년부터 통치하고 있습니다. 1991년 티그라얀 국민자유전선(TPLF)는 다른 단체들의 도움으로 공산주의 정부인 데르그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TPLF 의 중앙위원회는 당시 만들어진 연합정당, 즉 에티오피아 국민혁명민주전선(EPRDF)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EPRDF 는 민족연방주의의 민족차별적 모델을 바탕으로 TPLF 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민족(인구의 6%)만을 대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민족을 포함과 배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편파주의는 정당간 연합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정당 EPRDF 소속이 아니면 배제됩니다. 즉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들, 특히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영역이나 공무원이 될 기회, 시민사회, 교육의 기회, 대출, 자원, 부동산 임대에 있어서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에서 이들에게는 식량원조와, 종자, 관련된 농업자원에의 접근마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PRDF 는 2015 년 총선에서 의석의 100%를 석권했습니다. 살인, 체포, 투옥, 고문, 협박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인권범죄는 매우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EPRDF 는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모호한 법을 이용해왔고 2,600 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을 문닫게 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단체들로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많은 양심수들을 투옥했습니다. 민족에 따른 분리와 지배 정책은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정부지지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노선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결과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백의, 수천의 에티오피아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이 땅은 친 정부 인물들이나 해외투자자들에게 임대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인권적 처우나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의 강제이주를 당했고 에티오피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강제이주는 식량안정성을 위한 만들어진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티오피아에는 50 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1,500 만 명의 사람들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것이 그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될 것이라 믿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EPRDF 가 주장하는 기여도는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에 의해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엄청난 양의 부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더 가난해졌습니다. 긴장은 극도로 팽팽해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 개월 동안 수도 아디스 아바바 부근의 토지수용에 반대해 평화시위를 하던 학생 시위대 600 여명이 시위도중 살해당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에티오피아를 흔들 민족 폭력사태가 촉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에티오피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SMNE 는 이러한 난민 발생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EPRDF 정권과 함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투자 위험

한국과 같은 나라의 에티오피아 내 사업확장과 해외투자 등은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EPRDF 정권 하에서는, 저희는 한국이 의도치 않게 겪을 위험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견고한 경제체제는 민주적 자유와 동등한 기회, 좋은 교육환경, 강한 시민사회, 정보와 기술에의 열린 접근가능성, 독립적인 사법체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에티오피아에는 존재하지 않고, 피상적인 형태만 존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에티오피아는 민주주의적 수사학이 집권여당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자 모든 자원이 이미지를 쌓고 외교와 마케팅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이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민족과 영향력, 소속 당, 연줄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현재 에티오피아의 상황에서는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엘리트 계층의 사익은 전혀 제재 받지 않습니다. 법치는 권력자를 위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외국정부나 기업과 맺은 조약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모호하게 쓰여진 법과 계약은 이러한 조작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원은 항상 권력을 가진 엘리트의 편이며, 그 결과 카루투리 글로벌 같은 기업이나 몇몇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경우와 같이 다국적 기업들이 흥결을 가진 사법체계의 임의적 결정에 놓여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범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다면 에티오피아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인맥에 근거하거나 해외투자자들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이자 부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수년 전 감벨라 지역에서 있었던 사우디 스타 건물에 대한 공격과 같은 폭력사태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민족을 기반으로 한 집권여당에게 계속해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미 있는 개혁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절망과 열망이 폭발해 또 다른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 사실들을 대통령님께 주의를 드리고자 알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새로운 건물들을 에티오피아의 엘리트 문화로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에티오피아의 상처 입고 버려진 약한 자들을 보지 못 하실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 난민들이 그 증거입니다. 바로 그들이 에티오피아의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모국을 떠나 한국과 같은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들을 위해 굳건히 옆에 있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EPRDF**와 미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받아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토대로, 에티오피아 지도자들과 회담하실 때, 그리고 권위주의적 체제와 빈곤에서 벗어나 더 밝은 미래로 향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실 때 주의사항들을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밝은 미래가 올 그 날까지,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난민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라도 그들의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은, 난민 신청자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야에서 위대한 진보를 이룩한 국가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에티오피아인들은 대한민국의 예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방 메소 올림



SMNE 사무처장
910 17th St. NW, Suite 419
Washington, DC 20006 USA
Phone 202 725-1616
Email: Obang@solidaritymovement.org
Website: www.solidaritymovement.org

참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IS)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이성호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한국 대사관
난민들의 피난처

[This letter has also been Cc to major news media outlets such as](#)

The Korea Herald
Dong-A ILBO
Africa Confidential Al Jazeera
BBC World News
The Guardian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REUTERS AFRICA
VOA Amharic
The East Africa Business Daily